

# 성명서

## — 경찰에 의한 여대생 추행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우리는 최근 경찰에 의한 여대생 추행 및 폭행사건을 접하고 깊은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11월 21일 교회여성단체 그리고 청년 및 여성운동단체 등 10개 단체가 연합하여 ‘여대생 추행사건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이 사건이 여성에 대한 극단적 형태의 인권 탄압이며 특히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야만적인 폭행사건이라는 점에서 같은 여성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학생들은 보고서, 성명서, 사례발표회등을 통해 여학생 추행사건의 사실보도 및 폭행관계자 처벌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경찰국은 9월 17일 ‘여학생 추행사건 진상’이라는 발표문을 내어 그것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발표함으로써 학생들과 엇갈린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본 대책협의회는 우선 정확한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학생 당사자를 직접 만나 다음과 같은 사건의 경위를 밝혀내고 경찰측 주장이 오히려 사실 무근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 ◆ 사 건 경 위 ◆

◎ 9월 청량리 경찰서 사건 : 9월 4일 외국어 대학에서 있었던 대통령 방일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경희대 여학생 3명, 김영순( ), 최선윤( ), 정운자( )는 7일의 구류선고를 받고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송치되었다. 이들은 소지품 검사를 받은 뒤 같은 유치장에 송치된 여자 피의자 한사람과 수명의 전경이 보는 앞에서 신체검사라는 명목으로 완전히 옷을 벗을 것을 강요당했고 그 당시를 회상하는 학생들은 극심한 수치감으로 죽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이근이라는 전경은 이들에게 다섯번씩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기합을 주었으며 “일어나” “앉아”라고 구령을 붙이면서 이들이 한번씩 앉을 때마다 “야! 다리 더 벌려” “다리 더 벌리라니까”라는 명령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유치장에 돌아와서도 수치감과 분노로 떨고있는 여학생들에게 전경들은 계속 폭언을 퍼부었고 청량리 경찰서 정보 2계에서는 출감하는 여학생들에게 유치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함구할 것을 위협적으로 강요했다. (이상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들었음)

◎ 11월 서대문 경찰서 사건 : 11월 3일 연세대에서 있었던 ‘학생의 날 부활 기념연합행사’에 참여하려던 학생 190여명이 서대문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무차별로 구타를 당했고 특히 여학생들에게 사복형사와 전경들이 “여기 계집년도 있네. 집에 가서 빨래나 하지”라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 중 경찰의 폭행에 항의하는 12명의 학생은 따로 눈을 가린채 지하실로 끌고가 더 심한 폭행을 가했다. 그중 4명의 여학생은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남학생들을 돌아앉게 한후 쌀부대로 감은 각목으로 여학생들의 벗은 상체를 때렸다. 그후 여학생들만 다른 장소로 끌려갔다 왔는데 돌아온 여학생들은 말을 잃고 탈진상태로 쓰러졌다고 한다. (이 부분은 목격한 남학생의 증언을 청취했음)

또한 이날 서대문서에서 강서경찰서로 분산 수용될때 여학생 한명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전경이 화장실까지 따라갔다 왔는데 돌아온 여학생은 탈진상태였고 따라갔던 전경들은 자기 동료들에게 자랑하듯이 여학생의 유방을 만지는 모습을 재현했다고 한다.

◎ 11월 청량리서 사건 : 11월 3일 청량리 경찰서에 연행되어간 학생들에게 술에 취한 전경 연재구가 “우리는 제대 말년인데 말년풀이를 너희들에게 해야겠다”고 하며 위커발로 따귀를 때리는 등 무차별 구타를 했다. 그리고 여학생들을 보고 “너희같은 년이 나한테 시집올까봐 겁난다” “이 쌍년! 너희들 여기까지 왜 왔어? 할일없으면 내 똥구멍이나 빨어”라는 등 더러운 폭언을 퍼부으면서 심하게 구타했고 이에 반항하는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이 한웅큼씩이나 빠졌으며

심한 구타로 안면이 일그러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고 한다. (이상은 함께 연행되었던 학생들의 증언임)

몇달전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강간하고 강도를 한 파렴치범에게 법정은 일반 형사범 중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들 피고인의 행위는 육체적 살인보다 더 죄질이 무거운 살인죄”로 못 박고 “이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응징한 바 있다. 그런데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여학생들을 시민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위와같은 추행을 저지른데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일반 파렴치범의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전면 부정하고 오히려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여학생연합 여학생 추행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임원들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지명수배하고 있는 처사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대책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 우 리 의 요 구 ◆

1. 피해학생들과 ‘여학생연합 여학생추행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임원들을 수배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여부를 가려내는 일에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심리적 육체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배와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
2. 경찰은 폭행 및 추행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를 요구한다.
3. 우리가 아직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사실을 밝혀줄 것을 바란다.
5. 우리는 정부가 폭행관계자를 법에 의해 처벌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경찰에 의한 성적폭행이 없으리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장하기 바란다.

본 대책협의회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경찰과 정부의 반응을 주시할 것이며 사건의 추이에 따른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이에 많은 여성단체와 교회 및 사회단체, 청년,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바라는 바이다.

1984. 11. 23

## 여대생 추행사건 대책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인권위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인권위원회

여성평우회

여성의전화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여성선교위원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여성부

회 장 : 박영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고 문 : 이태영 (가정법률상담소장)

공덕귀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 성 명 서

-- 권양은 무조건 석방되어야 한다. --

항소심 재판에서도 권양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양에 대한 실형선고는 인권옹호와 고문근절에 대한 전 국민의 염원과 의지를 말살하겠다는 현 정권과 사법부의 폭력선언인 것이다.

도대체 이 정권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젊은이의 손결을 짓밟고, 목숨을 빼앗아야 진실앞에 승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

지난 1월 박종철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치사당했을 때, 군사독재 정권의 폭력성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의 불길이 높이 치솟자, 이에 놀란 현 정권은 기만적 술책으로 그 불길을 잠재우려 했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의 폭력적 본질은 박종철군 추도행사의 물리적 저지 무법천지 복지원사건의 미온적 수사, 소위 "실향민호국운동협의회 애국청년단"의 가톨릭농민회 회원에 대한 집단테러사건 등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것은 군사독재정권이 국민을 두려워 하기는 커녕 오로지 자신들의 물리적 힘만을 신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법부는 아직도 독재권력의 편에서 자신의 안위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와 책무에 대한 파탄선고를 내린 것이다.

독재권력의 종말은 멀지 않았다.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모든 법관은 기회주의적 나약성을 떨쳐버리기 위한 뼈를 깎는 몸부림을 시작하기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현 군사독재정권의 타도없이 는 고문과 폭력이 근절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땅에서 고문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 권양을 무조건 석방하라 !

- 강간, 살인 자행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

- 사법부는 자율성과 권위를 회복하라 !

1987년 3월 28일

부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

천주교수녀회 장상연합회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대책위원회

불교정토구현 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사회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성 구

하나의 새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  
하소서

(에베소 2 : 15)

# 속 보

## 제1호

1988년 6월 13일

발행 : 지태환형제 살인  
미수사건  
대책위원회



### \* 사건경위 \*

발 생 경 위 : 6월 10일 오후 4시경 홍제동에서 6.10 남북학생 실무회담 성사를 염원하며 판문점으로 가려고 5000여명의 애국 청년학생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현 정권의 기만적 작태와 폭력적 탄압에 의해 가로막혔고 평화적으로 홍제동 4거리에 드러누운 시민 청년학생들을 다연발탄(일명 지랄탄)과 백골단을 동원 폭력적으로 탄압 연행하기 시작함.

그 과정중에 지랄탄과 백골단을 피해 인근 3층 옥상 건물로 피신한 지 태환 (새문안 교회 대학부, 총신대 신학과 2학년) 군을 건물옥상까지 뒤 쫓아온 백골단 2명이 3층옥상에서 밀어뜨려 14m 아래로 추락하였음. 추락후 머리와 코, 입등에서 유혈이 낭자하였다.

상 태 : 앞 머리뼈가 깨지고 공기가 들어감  
(뇌막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오른쪽 팔이 부러짐

'목뼈가 어긋남

'전신 타박상

\* 현재 세브란스 병원 21병동 212호실에 입원중 "중태"

지태환형제 쾌유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시요.

누가 우리의 기독교형제 태환이를 이지경으로 만들었나요?

6.10 남북학생회담 성취를 위한 홍제동 연좌 농

성중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고 온몸으로 목숨까지도 조국의제단에 바칠 수 있다는 학생들의 결의에 찬 조국통일의 염원에 대해 악의 무리, 군부독재의 하수인들은 사정없이 4대의 다연발탄을 쏘아대며 강제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도망가지 않은 애국 학생들은 개 끌듯이 질질 끌어가고 건물로 피하던 학생들을 쫓아가 극기야 두 명의 백골단이 지태환형제 혼자 3층옥상으로 쫓기게되자 살인미수와 같은 행동으로 고의적으로 밀어 뇌와 목뼈, 오른팔, 척추, 가슴을 상하는 부상을 입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태환 형제는 전남 고흥이 고향으로 늘 자신이 농민의 아들, 땅의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새문안교회 대학부에 등록하게 된 첫날의 자기소개는 자기소개는 "척박한 땅 한반도에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이 땅 농민들이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 농민목회를 하는 것이 저의 꿈인 총신대 2학년 지태환입니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의 참다운 기독교학생 예수의 제자가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 조간신문을 돌리며 아르바이트가 아닌 생계의 수단이라고 말하며 성실하고 강직하게 살아가는 태환이에게 주님! 누가 이런 엄청난 참극을 저질렀습니까?

다음과 뜻과 정성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핏줄 한민족인 북한의 동포를 사랑하며 조국통일을 간절히 염원했던 태환이와 애국 기독교 청년 학생들의 행동이 어찌하여 이런 처참한 아픔의 결과를 낳아야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핍박을 받는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듯이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이 민족의 절절한 평화통일의 염원과 지태환군의 쾌유를 면치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태환이의 아픔을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두동간난 한반도가 하나의 민족으로 부활 할 수 있도록 희망과 완쾌을 기도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 6.10회담을 폭력으로 봉쇄한 반통일 사탄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 (애국성도에게 드리는 기독교청년학생의 글)

허리잡린 반도를 하나로 잇고자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6.10남북학생 실무회담은 한반도 전역을 뒤덮은 무장전경의 폭력적 탄압과 저지로 무산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기에 남도의 땅 제주도에서, 전라도에서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2만 5천여명의 애국학생들은 현 노태우 정권의 갖은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연세대에 모여 통일조국을 건설하고자하는 굳센 결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노태우정권은 애국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을 이루고자하는 결연한 의지를 "통일논의는 개방하되 교섭창구는 일원화한다." "남북학생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 하며 마치 현정권만이 통일을 지향하고 이룩할 수 있음을 선전하였습니다.

### 애국성도여러분!

그동안 청년학생들은 남북학생회담을 정부의 협조하에 치루기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판문점 사수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공식방문하기 위해 5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나, 미국과 현정권은 5명의 학생들을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측 대표단 13인을 정부에서 공식인정해 줄 것과 남북학생회담 성사를 위해 정부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3명의 공식대표단이 통일원장관 면담을 통해 전달하였으나 현노태우 정권은 학생들의 성실한 노력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미국과 현정권이 그토록 주장해온 대화와 타협은 누구를 위한 대화이며 무엇을 위한 타협입니까?

저희 기독교청년학생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통해 현정권의 대화와 타협은 기만이며 허구라고 단호히 규정합니다.

지난 6월 10일 홍제동에서 2만 5천여명의 시민학생들의 연와시위는 남북한의 반목과 질시 그리고 적대감을 해소하고 화해와 사랑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오로지 맨몸으로 우리의 동포를 만나보고자 했던 청년학생들의 순수한 의지를 현정권은 수백발의 지랄탄 난사와 함께, 흘리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는 수백명의 학생들을 방패와 몽둥이로 무차별 구타속에 연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에 항의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최루탄을 던지는가 하면 건물 3층 옥상으로 피하던 새문안교회의 지태환 형제(충신대 신학과 2년)를 백골단 2명이 14m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는 살인적행위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태환 형제는 뇌를 손상당함은 물론 오른팔이 부러지고 목부분의 후각신경이 끊어지는 중태에 빠져 세브란스병원(212호실)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현노태우정권의 시녀로 철저히 사육되는 현실을 볼 때 전투경찰과 백골단은 해체되어 마땅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세력은 누구입니까?

80년 5월 2천여명의 동족을 학살하고 12.16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의 권좌에 오른 노태우정권과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미국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미국과 노태우정권은 통일지향세력일 수 없으며, 남북한 6천만 국민이야말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진정한 애국민주세력이라고 단호히 규정합니다.

한반도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기독교청년학생들은 분열과 미움, 적대감이 만연되어 있는 이 땅에 "평화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원한 진리임을 고백하며 조국분단의 현실을 방관하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만을 구복하는 1천만 기독교인이 철저히 회개하고 평화의 메세지를 이 땅에 구현하는데 앞장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기독교청년학생들은 반통일 사탄세력인 미국과 노태우정권에 맞서 십자가의 행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애국성도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5천만 겨레의 노래가 교회에서 없어지는 지금의 현실에 애국성도가 앞장서서 민족화해와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위한 회개운동을 벌여나갑시다.

통일염원 44년 6월 13일